고성군, ‘고성 연당리 고분군(Ⅱ구역) 3호분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

1. 일　　시 : 2026년 10월 30일(금) 오후 3시 ~ 4시

2. 장　　소 :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산187번지 일원

3. 대　　상 : 경남도민 및 관계 전공자 등

4. 발굴조사 개요
- 허가번호 : 제2026-1482호
- 발굴유형 : 정밀발굴조사
- 조사기간 : 2026년 9월 28일 ~ 2026년 11월 02일(실조사일수:22일)
- 조사기관 : (재)삼강문화유산연구원

5. 발굴조사 내용

1. 발굴조사 결과, 삼국시대 3호분 봉토 및 매장주체부, 삼국시대 석곽묘 3기·수혈 1기 등이 확인되었다.

2.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은 도굴로 인해 상부가 파헤쳐져 있었고, 봉분의 동·서쪽은 후대 임도 조성 등으로 대부분 훼손된 상태였다. 봉분은 구릉의 주능선(동서향) 서쪽 말단부에 인접해 위치한다. 지형적으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자연경사면에 축조하였는데, 동쪽은 생토인 황갈색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고, 서쪽은 상대적으로 봉토를 높고 두껍게 쌓아 올렸다. 3호분의 봉분은 남북 길이 16.7m·동서 잔존길이 7.4m·잔존높이 1.9m로 확인된다. 현재는 남북축이 긴 타원형으로 확인되나, 후대 삭평으로 인해 전체 형태가 훼손되었다.

3. 3호분의 매장주체부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인 수혈식 석곽묘로 반지하식이다. 석곽묘의 규모는 길이 710㎝·너비 100~160㎝·잔존 깊이 160㎝ 가량으로 관찰된다. 벽석은 북단벽에서는 8단, 남단벽은 15단 가량이 확인되고, 동·서 장벽은 대부분 무너지고 훼손되어 형태가 정연하지 않은 편이다. 유물은 양쪽 단벽에서 토기류(남단벽에는 호·대부호, 북단벽에는 통형기대·호, 내부에서 발형기대 등)가 확인되고, 묘광 중앙부에서는 철기(꺾쇠) 등이 출토되었다.

4.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 주변에는 삼국시대 석곽묘와 수혈 등 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3호분의 동쪽에 위치하는 3-1호 석곽묘는 2단의 할석만 남아있는 형태이고, 상부의 대부분은 교란 및 훼손되어 형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부에서 개배蓋杯 3세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3호분의 남쪽에 조성된 Ⅱ-1·2호 석곽묘는 중복관계에 있으며, 특히, 먼저 조성된 Ⅱ-1호 석곽묘는 평면형태가 세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410㎝·너비 110㎝·깊이 100㎝이다. 벽석은 5~7단 가량이 남아있으며, 바닥에는 작고 납작한 형태의 돌을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는데, 중앙을 제외한 양쪽에서만 확인된다. 유물은 북단벽에서는 단경호·철촉이, 남단벽에는 갑옷·유개고배有蓋高杯가 출토되었으며, 중앙의 서장벽 부근에는 대도大刀·이환耳環·옥玉 등이 출토되었다.

5.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과 주변에서 확인되는 매장주체부는 모두 수혈식 석곽묘이다. 토기류는 유개고배有蓋高杯·개배蓋杯·발형기대鉢形器臺·통형기대筒形器臺·단경호短頸壺·장경호長頸壺 등이 확인되고, 철기류는 갑옷·대도大刀·철촉鐵鏃 등이 관찰되며, 장신구류로는 이환耳環·옥玉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소가야 및 외래계인 대가야 양식의 토기류 등) 및 기 발굴조사 성과 등을 적용하면 축조시기는 6세기 전반대로 추정할 수 있다.



고성 연당리고분군 원경



고성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 전경



고성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 북단벽 전경



고성 연당리고분군(Ⅱ구역) 3호분 동장벽 전경



1호 석곽묘 전경



1호 석곽묘 북단벽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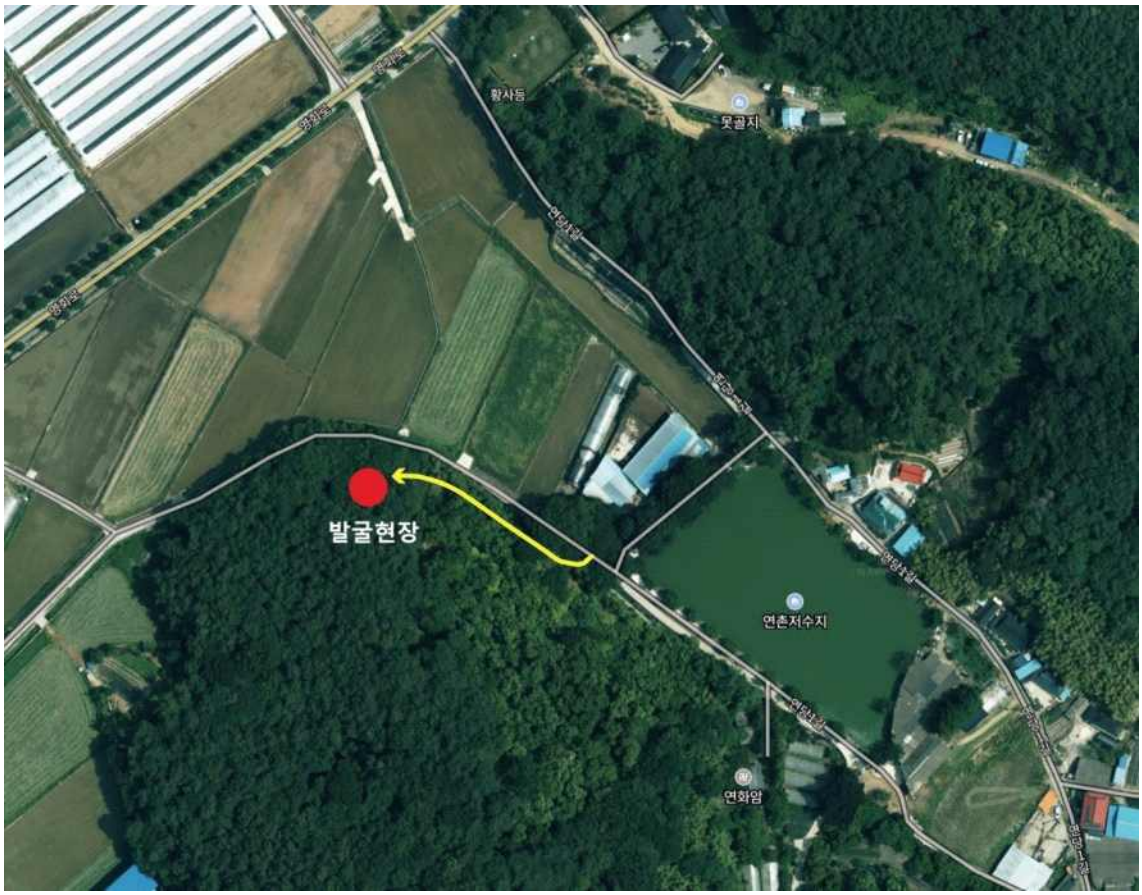
1호 석곽묘 출토유물-갑옷



1호 석곽묘 출토유물-대도

6. **조사지역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영오면 연당리 산187번지 일원

* 현장오시는 길: 연당리 연촌마을 연촌지 인근에서 '현장공개설명회 현수막'을 따라 임도로 이동하면 현장이 나옵니다.



7. **문의처**

- 현장팀장: 강경연(010-9385-4702)